

보더와 얼터네이트

보더 무늬와 유사하게 부르는 방법으로 보더 구도 무늬가 있다. 옷감의 변부를 보더라고 한다. 변부에 피상으로 모양을 한 구도를 양(兩)보더 어느 한 쪽의 변부분에 모양을 낸 것을 편(片)보더라고 한다. 옷감인 경우에는 편보더가 일반적이다. 보더 안쪽의 바탕 부분에는 보더의 모양과는 다른 모양이 산포되어 있는 양식이 많다. 인도 여성이 두르고 있는 샤리의 모양에는 이러한 구도의 것이 많다. 이러한 보더의 모양을 교묘하게 살린 착장이 아름다움의 포인트가 된다. 보더 구도의 옷감으로써 길이가 긴 스커트를 만드는 경우에는 보더의 모양을 밑단부분이 되도록 디자인한다. 몸통 쪽에는 바탕의 산포된 무늬가 가도록 한다. 일반적인 재단방식과는 달리 옷감은 경사가 가로방향으로 상하가 되도록 형입하여 요척을 채용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경사가 위사 방향으로 좌우하게 된다. 길이는 옷감의 폭의 범위 내에 있다. 어쨌든 보더 구도의 모양은 민속적인 표현이 많다. 역시 프린트한 것이다.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인도 경사를 양복 옷감으로 이용한 것에서 유래한 것인지도 모른다. 평직의 부드러운 면 프린트를 이용한 롱스커트는 더운 아시아의 운치가 있다. 이러한 낙낙한 스커트는 보기와는 달리 바람을 내측에 일으켜 착용감은 서늘하다. (야말화지(野末和志))

헤어 스트라이프를 2가지 색상을 한 올씩 교호로 배열한 세로 줄무늬가 얼터네이트이다(alternate). 이것과 HBT(herringbone twill, 삼릉(杉綾))를 조합시킨 것 등 독특한 맛을 낼 수 있는 색상 무늬이다. 헤링본은 능직을 변화시켜서 직물에 나타내는 줄무늬의 일종으로 백색과 흑색의 배색을 조화롭게 잘 이용할 수 있는 남성 무늬이다. 이것은 콤비로 바지만으로 또는 상의로만 입는 것보다는 상하로 갖추어진 슈트가 좋다고 할 수 있다. 하루핀 머리 정도

크기의 점점이 배열되어 줄무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핀헤드 스트라이프이다. 격자 무늬라면 작은 풍차가 좌우 상하로 이어져 있는 시앤시 체크, 경위사 공히 8올로 나타낸 무늬는 하운즈투스(hound's tooth), 피에드푸올(새다리) 등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훌륭한 여성 무늬로 사용되고 있다. 흑백의 배색이 좋다. 상하 또는 좌우로 이어져 있는 격자는 모그스투스(dog's tooth)라고 부르고 있다. 큰 풍차가 좌우 상하로 이어져 있는 것이 윈드밀, 스타 체크 등, 모두 백과 흑, 백색과 갈색의 배색이 알맞은 여성의 무늬이다. 코트에도 자주 사용되는 무늬이다.

작은 격자상의 능직 무늬인 셰퍼드 체크(shepherd's check)도 백색과 흑색의 배색이 좋은 남성무늬인데 이것은 상하로 착용하면 촌스럽고 다른 상의와 함께 콤비로 바지만으로 입는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큰 격자상을 이룬 호스 브랑케트도 흑백이 스포티하다. 빗살과 편측 사다리의 조합으로 풍차 또는 격자를 조합한 듯한 격자무늬가 그랜체크인데 이것은 슈트로 한다면 재킷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무늬가 확실하게 보이는 배색이 좋다. 긴 쪽이 5cm, 짧은 쪽이 4cm 정도의 형태의 격자무늬는 윈도우페인이다. 쇼윈도우의 격자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것은 여성무늬이다.

헤링본(herringbone)은 “청어의 뼈”라는 의미로 그와 닮은 조직 효과를 가진 옷감의 총칭이며 팔자 능이라고도 하며 안정하게 균형이 잡힌 무늬를 헤링본 능직(HBT)이라고 한다. 정식으로는 헤링본 트월, 즉 청어의 등뼈라는 의미로 사선무늬 직물의 일종이다. 미니 헤링본은 언뜻 보면 무늬가 아니라 골과 같이 보이며 검은색이 기조인 것은 무늬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헤링본은 흄스펀, 도니골 등과 함께 트위드에 속한다. 트위드는 클래식하고 미니멀한 여유로움을 느끼게 하여 슈트, 재킷, 오버코트 등에 주로 쓰인다. 헤링본 스트라이프(herringbone stripe)는 헤링본과 줄무늬가 조합된 무늬로서

슈트, 코트감으로 자주 사용된다. 원래는 전통적인 신사복 소재로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여성복에도 사용하여 보수성이 강한 캐주얼 타입으로 여성다운 보다는 지성미를 나타내는데 효과가 있다. (야말화지(野末和志))

보온성이 뛰어나고 착용감이 좋아 코트나 스커트, 재킷 등 다양한 아이템에 이용된다.

헤링본의 모양에는

① 동일색의 제직사로써 제직을 나타낸 무지의 것

② 이색의 제직사로써 제직을 나타내 모양이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있다

어느 경우에도 모양이 천의 전면에 균등하게 퍼져있다. 천이 짜여짐과 동시에 직물조직에 의하여 생기는 모양을 지직(地織)모양이라고 한다.

지직모양은 헤링본 이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예를 들면 무늬와 rx이 독립하여 눈에 띄는 것이 아니고 바탕 자체 그것을 말한다.

테일러드 복장, 슈트, 재킷, 코트 등에 이용되는 옷감으로 지직모양이 많다. 양모옷감 이외에도 셔츠감으로도 바지감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지직모양은 직물의 베이직 중의 베이직 패턴이다. 그런데 무늬(紋)라 함은 바탕 속에 배치된 무늬(柄)를 말한다.

흑색 바탕에 백색의 펜슬 스트라이프 또는 그레이 스트라이프의 모습은 좋다. British traditional 스트라이프는 상하를 갖추어 입는 쪽이 예쁘다. 스트라이프를 톱만으로 또는 보름만으로 입으면 중후하게는 보이지 않는다. 펜슬 스트라이프라든가 초크 스트라이프, 핀헤드 등의 무늬를 British traditional이라고 한다. 상하 같은 무늬의 스트라이프만이 아니라 상하가 다른 무늬의 스트라이프도 멋지기는 하지만 센스가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쪽인가를 무지로 하여 무늬와 조합시키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즐겁고 무난하기 때문에 잘 사용되는 방법인데 새로운 맛은 없다. 그런데

스트라이프인 경우는 그만큼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의외로 용이하게 패턴 온 패턴(무늬를 조합시키는)이 잘 맞아떨어진다. 격자 무늬는 약간 어렵게 되는데 핵심적인 방법이 있다. 그것은

① 외의와 내의에 무늬의 대소의 차이를 둔다. 예를 들면 재킷에는 큰 격자 무늬, 셔츠에는 가는 격자 무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톱과 보텀에도 응용할 수 있다.

② 외의 무늬의 일부와 같은 크기의 무늬를 내의로 사용한다. 물론 톱과 보텀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것이나 같은 색상이라던가 유사한 색상이 사용되고 있다면 성립되는 것이다.